

Types of perception on the body shape of middle-aged women

Su-Joung, Ch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c data of clothing development that can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body shape by examining the subjective eval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The types of body shape of middle-aged women were analyzed as four types: elasticity loss ladder type, flat rectangular type, thin reverse ladder type, and upper body obesity inverted triangle type. The elasticity loss ladder type was developed with the lower body,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legs size such as the thighs and calves were large, the abdomen was protruded, and especially the underbelly appeared. The flat rectangular type was the largest of the four types, and was the skinny type. The width was larger than the thickness of the body,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hip circumference and the waist circumference was small, and it was classified into a flat rectangular shape. The thin reverse ladder type was the smallest of the four types, the upper body was developed, the back had weight, and the body was leaning forward. And the lower body and leg were poor and the abdomen was protruding. Finally, the upper body obesity inverted triangular was the highest type of BMI index among 4 types. All of subjects belong to the mild and middle obesity, and the second was the smallest but the most weighted type among 4 types. They had the fat body and big bust, the upper body was developed, and the lower body and legs were analyzed to be poor body shape. Based on the body shape of middle-aged women, it is necessary to develop designs and patterns that can cover the shortcomings of body shape.

▶ Keyword: Body shape, Middle-aged women, Perception, Type, Q-method

I. Introduction

급속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보급과 넘쳐나는 식품들은 현대인의 움직임을 감소시키고 영양과잉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비만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였으며, 현대에 들어서면서 외모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학력수준의 향상, 사회진출의 확대 등으로 사회적으로 외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자신의 체형과 외모에 관심을 갖는 여성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여성에게 있어 중년기는 인간발달단계의 전 과정에서 인생 전반에서 후반으로 바뀌는 주요한 전환점으로 간주된다. 중년

기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년기가 길어지고 자녀수의 감소로 자녀양육기간이 짧아지면서 중년기는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 선행연구들은 생활연령과 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중년기의 시기를 정의한다. 생활연령에 따라 Jaques(1965), Sheehy(1976), Gould(1976)는 35-45세, Erickson(1956), Levinson(1978)은 40-60세를 중년기로 구분하였다[2-6]. Robert Havighurst(1972)는 인생주기 6단계 중 제 5단계(30-60세)를 중년기로 보았고[7], Levinson(1986)은 40-59세를 중년기로 정의하였다[8]. 국내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40-59세의 20년간의 시기를 설정하고 있다[9-13]. 의복구성분야에서 박순지(1994)는 40-49

• First Author: Su-Joung, Cha, Corresponding Author: Su-Joung, Cha

*Su-Joung Cha (carollain@seowon.ac.kr), Dept. of Fashion and Clothing, Seowon University

• Received: 2017. 06. 28, Revised: 2017. 07. 17, Accepted: 2017. 08. 29.

세[14], 송부경(2000)은 45-59세[15], 박소영(2003), 양혜원(2004), 범서희(2005)는 40-59세 여성을 중년 여성으로 선정하였다[16-18]. 가족생활주기에서는 가족관계의 진화과정과 생활사건개념 등을 고려하여 노부모와 성장한 자녀의 중간에 위치하는 세대로 막내자녀가 독립하는 시기부터 은퇴하는 시기까지를 중년기로 구분하였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많은 연구에서 장년층으로 구분된 40-59세를 중년 여성으로 정하였다.

중년 여성은 연령의 증가와 임신, 출산 등으로 신체 치수와 프로포션(proportion)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신진대사 기능의 감소로 인하여 배 부위나 등, 어깨 등의 피하지방이 두꺼워지는 형태적 변화와 함께 비만으로 인한 신체 균형이 달라지게 된다[20]. 키를 비롯한 높이항목이 감소하고 둘레항목이 증가하면서 허리부위가 비대해지고 복부 돌출 현상이 심해지며, 윗팔과 목이 굽어지며 등에 군살이 붙고 유방과 엉덩이가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 몸매의 불균형을 초래한다[21-22].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비보다 두꺼의 변화가 많으며, 대부분이 높이항목은 감소하는 반면 몸무게의 증가로 BMI가 증가한다. 그리고 가슴이 처지고 사지부가 가늘어지며, 목과 등이 굽고, 어깨가 처지며, 점차 두껍고 둥근 체형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23].

윤지원(2013)은 중년 여성의 체형을 상반신 비만체형, 납작한 슬림체형, 하반신 슬림체형, 납작한 비만체형, 둥근 슬림체형으로 분류하였고[23], 장문희(2012)는 표준체형, 둘레, 너비, 두께 항목에서 조금 굵은 젖힌체형, 숙인체형, 비만체형, 마른 체형으로 구분하였다[20]. 중년 여성 하반신 체형을 이진경(1995)은 하반신의 수직크기가 작고 동하부의 비만도가 높은 밋밋한 체형, 하반신의 수직크기 및 동하부의 비만도가 중정도로 엉덩이가 다소 처진 체형, 하반신의 수직크기가 가장 크고 동하부의 비만도는 가장 작으며, 비교적 허리가 잘록하고 동하부가 납작한 마른 체형으로 구분하였다[24]. 이정진(2011)은 직사각형 형태의 슬림체형, 마름모형 형태의 비만체형, 큰 사다리꼴 형태의 약간 비만체형으로 분류하였다[22].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중년 여성의 실제 신체치수를 가지고 체형을 분류한 것이며, 중년 여성들의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유형화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유형별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신체 외형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복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Methods

1. Q Methods

Q방법론은 1935년 물리학자이면서 의사소통이론을 바탕으로 심리통계학자였던 William Stephenson에 의해 개발된 방법론이

다. 그 후 Eysenck과 Thurston에 의해서 꾸준한 발전을 이루다 Brown에 의해 완성된 연구방법이다[25]. Q방법론이란 과학의 세계에서 간과되었거나 배제되었던 인간의 주관적 영역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심리학을 포함하여 사회과학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이다[26]. Q방법론은 인간의 가치와 신념 같은 주관적인 요소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기법으로[27], 기존의 행태주의 연구방법과는 달리 주관적 속성들에 걸쳐 사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방법이다[28].

Q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지각(Knowledge), 특성(Personality), 신념(Belief) 체계가 개인 중심적이고, 개인의 판단 내에 계층화된다. 또한, 태도는 개인 중심적이고 개인들이 느끼는 환경적인 현상에 대한 의견으로부터 나온다. 즉, Q방법론에서 변인은 느낌, 의견, 선호, 감정, 이상, 취향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27]. 연구자의 가정이 아니라 행위를 하는 자의 관점에서부터 시작되며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진술문은 답변자의 자아참조적(self-referent)의견으로 구성된다. Q방법론의 적용은 기존문헌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평가기준에 대하여 Q진술문을 작성하고, 각 이해 관계자를 중심으로 추출된 P 표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태도의 구조와 차이를 밝히는 것으로 이루어진다[2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들이 본인의 체형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행위자의 관점에서 답변자의 의견을 분류하기 위해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Q연구의 절차는 Q모집단의 구축, Q표본 도출, P표본 선정, Q소팅 및 자료처리, Q분석, 유형 해석의 총 6단계로 이루어진다[30].

2. Study Plan

2.1 Q Population and Q Sample

Q모집단은 한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의견의 총체인 통합체(concourse)이므로[28], 본 연구에서의 Q모집단은 중년기 여성의 체형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모든 의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Q표본의 선정은 Q모집단의 선정과 같이 성공적인 Q방법론 연구를 위하여 중요하며 신중하게 실시되어야 한다[28]. Q표본은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주제와 관련된 모든 진술문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조사된 자료를 통하여 수집된 Q모집단의 40개 진술문을 패션관련 대학 교수님과 전문가에게 먼저 제공하였다. 그 후, Q방법론에 적당한 수의 진술문으로 추출을 하였다. 상반신 체형, 하반신 체형 등으로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31개의 Q표본을 구성하였다(Table 1).

2.2 P Sample

P표본이란 조사에 응답하는 응답자들을 뜻한다. Q방법론은 사람들 간의 차이를 보는 목적이 아닌 응답자 개개인 내의 중요성 차이를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small-sample doctrine)[28]. Q방법론은 표본의 크기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1인을 대상으로도 연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2017년

5월 25일부터 2017년 6월 15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P표본은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명의 P샘플을 선정하였다.

Table 1. Q Statement selected as a sample

Q Sample			
1	I have a protruding abdomen.	17	I am tall.
2	I have a developed upper body.	18	I have a big bust.
3	I have a developed under body.	19	I have a diamond shape whose waist circumference is larger than the hip circumference.
4	My bust is sagging.	20	I have a ladder shape whose hip circumference is larger than the waist circumference.
5	My hip is sagging.		
6	I have a thick neck.	21	I have thick calves.
7	I have weight on my back.	22	I have thick ankles.
8	I don't have muscles.	23	I am bent forward.
9	I am a fat body.	24	I am a body that is bent backward.
10	I have big hips.	25	I have a upper part of the belly.
11	I have thick thighs.	26	I have a underbelly.
12	I am a rectangular shape with a small gap between waists and hips.	27	My belly is overlapping.
13	I have protruding sides.	28	I am thicker than the width of the body.
14	I am wider than body thickness.	29	My legs are thinner than my body.
15	I have more abdomen than the chest area.	30	I have protruding hips.
16	I have a lot of weight on my arm.	31	I have drooping shoulders.

2.3 Q Sorting

Q소팅은 Q표본이 유사정상분포(quasi-normal distribution)가 되도록 강제분류방식을 활용하였다. Q방법론은 Q표본을 정상분포와 유사하게 분류하여 주요인분석이 가능하게 만든다. 우선 P샘플들이 Q표본 31개를 모두 읽은 후 긍정과 중립, 그리고 부정의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긍정 진술문 중에서 가장 긍정하는 것을 차례로 골라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하였고, 동일한 방식으로 부정 진술문도 분류하였다(Figure 1).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진술문은 중립의 영역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Q소팅이 끝난 이후에는 양극단에 위치한 긍정의 진술문 4개, 부정의 진술문 4개에 대해 그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심층 면담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조사한 내용은 기록하여 분석결과에 활용하였다.

3. Statistic and Analysis Method

Q분석을 위하여 퀴넬 프로그램(QUANL pc program)을 활용하였고, 변환점수(computational score)를 사용하여 코딩하였으며, 베리맥스(varimax) 방식으로 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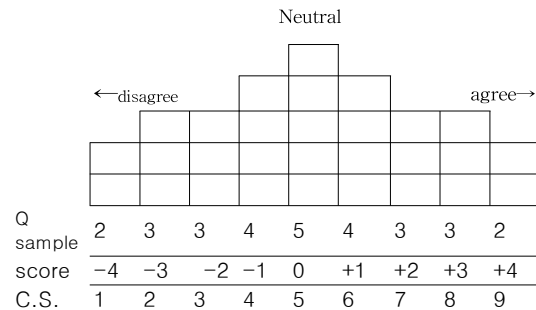


Fig. 1. Distribution chart for Q sorting

III. Result

1. Analysis Results

중년 여성의 체형에 대한 인식 유형은 다음의 <Table 2>와 같이 3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인 2의 경우 부정적인 부분이 45.57%이고 반대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54.43%로 나타나 2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총 4개의 유형으로 나뉘었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가 '1'이상인 요인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4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47.67%를 설명하고 있었고, 제3유형과 제4유형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제2유형과 제3유형, 제1유형과 제2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유형은 제2유형과 제4유형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Table 2. Q Factor loading and variance

Division	Type 1	Type 2	Type 3
Factor loading	4.1021	3.0812	2.3513
Variance	0.2051	0.1541	0.1176
Cumulative variance	0.2051	0.3592	0.4767

Table 3. Correlation of 4 types

Division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1	1.000	-0.037	-0.094	-0.113
Type 2	-0.037	1.000	0.168	-0.436
Type 3	-0.094	0.168	1.000	0.417
Type 4	-0.113	-0.436	0.417	1.000

제1유형은 9명, 제2유형은 4명, 제3유형은 4명, 제4유형은 3명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의 경우 평균연령 48.0세로, 몸무게는 평균 58.0kg, 키는 162.4cm, BMI(Body Mass Index)는 21.96으로 정상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제1유형 중 2명은 경도비만으로 나타났다. 9명중 7명은 기혼이며, 2명은 미혼이었다. 자녀수는 평균 1명으로 나타났다. 제2유형은 평균연령 47.5세로 나타났다. 제2유형의 몸무게는 51.8kg, 키는 164.0cm였으며, BMI는 19.22로 정상체중이었다. 그러나 제2

유형 중 저체중이 2명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있어서는 4명 중 3명은 기혼이며, 1명은 미혼이었다. 자녀 출산은 기혼자의 경우 각 1명씩으로 평균 자녀수는 0.75명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의 경우 평균연령 48.0세로 몸무게는 평균 55.3kg, 키는 160.3cm였으며, BMI는 21.52로 정상체중이었다. 4명 중 3명은 기혼이며, 1명은 미혼이었다. 자녀수는 기혼자의 경우 각 2명씩으로 평균 자녀수는 1.5명으로 나타났다. 제4유형은 평균 연령 51.7세로 나타났다. 제4유형의 몸무게는 71.7kg, 키는 161.0cm였으며, BMI는 27.65로 경도비만이였다. 1명은 중등비만에 속하였고, 나머지 2명은 경도비만에 속하였다. 3명 중 2명은 기혼, 1명은 미혼이었으며, 평균 자녀수는 1명이였다 (Table 4).

Table 4. Factor loading by type of P sample

Division	No.	Factor loading	Age	Weight (kg)	Height (cm)	BMI	Marriage	Children
Type 1 (n=9)	2	1.0340	49	48	158	19.23	yes	1
	5	1.3711	45	55	163	20.70	yes	1
	7	1.0266	40	58	163	21.83	yes	1
	9	1.0087	47	50	159	19.78	yes	1
	11	0.5776	46	45	163	16.94	no	0
	13	1.2963	47	63	170	21.80	no	0
	16	0.5896	53	70	160	27.34	yes	2
	19	1.2366	55	73	163	27.48	yes	2
	20	1.4713	50	60	163	22.58	yes	1
Type 2 (n=4)	6	0.2372	40	58	171	19.84	yes	1
	14	0.6531	51	58	161	22.38	yes	1
	15	1.2501	48	44	159	17.40	yes	1
Type 3 (n=4)	18	1.1122	51	47	165	17.26	no	0
	4	1.0028	45	50	160	19.53	yes	2
	8	1.3824	48	62	159	24.52	no	0
	10	1.7980	48	57	164	21.19	yes	2
Type 4 (n=3)	12	0.6699	51	52	158	20.83	yes	2
	1	0.7129	54	72	165	26.45	yes	2
	3	1.2844	52	78	160	30.47	no	0
	17	0.9842	49	65	158	26.04	yes	1

2. Formation of Q type

2.1 Type 1: Elasticity loss ladder type

제1유형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제1유형의 중년 여성들은 모두 하체가 발달된(No.3) 유형이다. 제1유형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허벅지가 두껍고(No.11), 복부가 돌출되었으며(No.1), 종아리가 굵고(No.21), 아랫배가 나왔다고(No.26) 생각하고 있었다. 또, 가슴이 처지고(No.4), 엉덩이도 처져 있다고(No.5)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가슴이 크고(No.18), 어깨가 처지거나(No.31) 다리가 몸에 비해 가늘다는(No.29) 항목에는 매우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사각형 체형(No.12)이나 마름모형 체형(No.19)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6).

요인가중치가 큰 20번(1.47), 5번(1.37), 13번(1.30) 응답자는 제1유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20번 응답자는 “가슴과 엉덩이에 점차 처지고 있다”고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탄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허벅지가 두꺼워진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살이 붙어서 두꺼워진다”고 하였다. 또, “엉덩이둘레가 허리둘레보다 큰 사다리체형”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슴보다 엉덩이둘레와 허벅지 부위에 살이 붙어서 점차 사다리모양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반면 “어깨가 처져 있다”, “윗배가 나왔다”, “목이 두껍다”, “허리와 엉덩이둘레 차이가 없는 밋밋한 직사각형 체형이다”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Standard scores by type of 3factors(Z-score)

No.	Statement	Type1	Type2	Type3
1	I have a protruding abdomen.	1.3	-0.1	1.9
2	I have a developed upper body.	-0.2	-1.3	1.3
3	I have a developed under body.	2.0	1.7	-1.2
4	My bust is sagging.	1.4	-1.4	-0.1
5	My hip is sagging.	1.2	-0.5	-0.6
6	I have a thick neck.	-0.9	-1.8	0.2
7	I have weight on my back.	0.0	0.1	1.0
8	I don't have muscles.	-0.3	1.8	1.6
9	I am a fat body.	0.2	-1.5	0.1
10	I have big hips.	0.8	-0.7	-1.3
11	I have thick thighs.	1.8	-0.5	0.0
12	I am a rectangular shape with a small gap between waists and hips.	-1.2	1.1	0.7
13	I have protruding sides.	0.3	0.0	-0.1
14	I am wider than body thickness.	-0.1	1.9	0.6
15	I have more abdomen than the chest area.	-0.3	0.3	-0.7
16	I have a lot of weight on my arm.	0.7	-1.3	-1.3
17	I am tall.	-0.4	0.1	-1.0
18	I have a big bust.	-1.1	-1.5	-0.4
19	I have a diamond shape whose waist circumference is larger than the hip circumference.	-1.8	-0.7	-0.9
20	I have a ladder shape whose hip circumference is larger than the waist circumference.	0.6	0.4	-0.3
21	I have thick calves.	1.2	0.2	-1.3
22	I have thick ankles.	-0.2	-0.8	-0.8
23	I am bent forward.	0.0	0.3	1.0
24	I am a body that is bent backward.	-1.0	1.0	-1.2
25	I have a upper part of the belly.	-1.1	-0.1	0.8
26	I have a underbelly.	1.2	0.8	1.6
27	My belly is overlapping.	-0.0	0.5	0.9
28	I am thicker than the width of the body.	-0.5	0.1	-0.4
29	My legs are thinner than my body.	-1.8	0.5	1.5
30	I have protruding hips.	-0.5	1.0	-1.2
31	I have drooping shoulders.	-1.2	0.7	-0.2

Table 6. Characteristic of Type 1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1	Standard score
3. I have a developed under body.	1.99
11. I have thick thighs.	1.81
4. My bust is sagging.	1.37
1. I have a protruding abdomen.	1.27
5. My hip is sagging.	1.23
21. I have thick calves.	1.17
26. I have a underbelly.	1.15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1	Standard score
24. I am a body that is bent backward.	-1.02
18. I have a big bust.	-1.07
25. I have a upper part of the belly.	-1.10
12. I am a rectangular shape with a small gap between waists and hips.	-1.17
31. I have drooping shoulders.	-1.25
29. My legs are thinner than my body.	-1.77
19. I have a diamond shape whose waist circumference is larger than the hip circumference.	-1.80

20번 응답자의 경우 “목은 두껍지 않으며, 허반신이 더 발달된 체형으로 사다리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5번 응답자는 “하체가 발달되어 있고 종아리와 목이 굵으며 아랫배가 나왔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유전적으로 가족들이 하체가 발달되어 있으며, 운동부족으로 인한 복부의 돌출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가슴은 크지 않고 마름모꼴 체형은 아니며, 뒤로 젖혀지지 않았고 다리가 가늘지는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출산과 모유수유 이후 가슴을 점차 줄여주고 있고 엉덩이가 허리둘레보다 훨씬 큰 사다리형태이며, 종아리가 굵다”고 응답하였다. 또, “평상시 걸을 때 앞으로 약간 숙이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3번 응답자는 “허벅지가 굵고 엉덩이가 큰 하체가 발달된 체형”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체가 발달된 이유로는 “활동이 적고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허리는 가늘고 엉덩이는 크면서 허벅지가 두꺼워 옷을 구매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제1유형의 경우 상체보다는 하체가 발달되어 있는 체형이면서 가슴이나 엉덩이 등이 처져 있는 체형으로 인식하였다. 허벅지와 종아리 등 다리관련 둘레가 크고, 엉덩이둘레도 허리둘레보다 크며, 윗배보다는 아랫배가 돌출되어 있는 체형으로 인식되었다.

2.2 Type 2: Flat rectangular type

제2유형은 4명으로 구성되는데, 제2유형의 중년 여성들은 제1유형과는 다소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제2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몸통 두께보다 너비가 넓으며(No.14), 근육이 없다(No.8). 그리고 허리와 엉덩이 차이가 작은 맛만한 직사각형 체형이며(No.25) 하체가 발달되어 있다(No.3)는 항목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다. 동의하지 못하는 항목으로는 팔에 살이 많고(No.16) 상체가 발달되어 있다(No.2). 그리고 가슴이 처져 있고(No.4) 뚱뚱한 체형(No.9)이다. 가슴이 크고(No.18) 목이 굵다(No.6)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요인가중치가 큰 15번(1.25), 18번(1.11) 응답자는 제2유형

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15번 응답자는 “하체가 발달되어 있다”, “몸통 너비가 두께보다 넓다”, “근육이 없다”, “배가 겹쳐져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상체보다는 하체가 살이 많다”, “앞뒤로 납작한 체형이다”, “다른 체형이라 살도 없지만 운동을 하지 않아 근육도 없다”, “출산 후 나이가 들면서 뱃살만 겹쳐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뚱뚱한 체형이다”, “가슴이 크다”, “팔에 살이 많다”, “키가 크다”는 항목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너무 다른 체형이라 걱정이다”, “가슴도 엉덩이도 없어 납작하고 맛만한 체형이다”, “팔이 너무 가늘다”, “키는 작은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15번 응답자는 키가 작고 마른 체형으로 볼륨감이 없는 납작한 직사각형 체형이라고 인식하였다. 18번 응답자는 “허리와 엉덩이 치수 차이가 적은 직사각형 체형이다”, “두께보다 너비가 넓다”, “근육이 없다”, “키가 크다”는 항목에 강하게 동의하였다. 그 이유로는 “허리와 엉덩이, 가슴둘레의 차이가 거의 없는 맛만한 H형 실루엣을 가지고 있다”, “몸통이 납작한 형태로 너비가 두께보다 더 넓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근육이 없어지고 있다”, “키가 큰 편이면서 말랐다”고 하였다. 그러나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항목에는 “상체가 발달되어 있다”, “목이 굵다”, “가슴이 처져 있다”, “뚱뚱한 체형이다”라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상체가 발달되어 있지는 않고 상하체에 별로 살이 없다”, “목이 굵지 않고 살이 없어 가는 편이다”, “가슴에 볼륨이 없어 처지지 않았다”, “마른 편이며 뚱뚱한 체형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18번 응답자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으로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차이가 거의 없는 직사각형의 납작한 체형으로 인식되었다.

BMI 지수가 4유형 중에서 가장 작고, 키는 4유형 중 가장 큰 체형으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임을 알 수 있다. 또, 두께보다 너비가 큰 납작하고 직사각형 형태의 체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7. Characteristic of Type 2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2	Standard score
14. I am wider than body thickness.	1.95
8. I don't have muscles.	1.84
3. I have a developed under body.	1.73
12. I am a rectangular shape with a small gap between waists and hips.	1.15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2	Standard score
16. I have a lot of weight on my arm.	-1.33
2. I have a developed upper body.	-1.33
4. My bust is sagging.	-1.44
9. I am a fat body.	-1.48
18. I have a big bust.	-1.54
6. I have a thick neck.	-1.81

2.3 Type 3: Thin reverse ladder type

제3유형은 제1유형과는 상반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제3유형의 중년 여성들은 상체가 발달된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제3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복

부가 돌출되고(No.1), 근육이 없으며(No.8), 아랫배가 나온 것(No.26)으로 나타났다. 또, 다리가 몸에 비해서 가늘고(No.29) 상체가 발달된(No.2) 앞으로 숙인 체형(No.23)으로 등에 살이 많은 것(No.7)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키가 크다(No.17), 뒤로 젖혀진 체형이다(No.24), 하체가 발달되어 있다(No.3), 엉덩이가 돌출되어 있다(No.30), 종아리가 굵다(No.21), 엉덩이가 크다(No.10), 팔에 살이 많다(No.16)는 진술문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8).

요인가중치가 큰 10번(1.80) 응답자는 제3유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10번 응답자는 “상체가 발달되어 있다”, “다리가 몸에 비해 가늘다”, “아랫배가 나왔다”, “복부가 돌출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하체에 비해서 상체가 비만이다”, “하체가 빈약하여 다리가 가늘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 복부가 돌출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허리둘레가 엉덩이둘레보다 큰 마름모형 체형이다”, “배가 가슴보다 더 돌출되어 있다”, “하체가 발달되어 있다”, “허벅지가 두껍다”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엉덩이둘레가 허리둘레보다는 크다”, “가슴이 더 돌출되어 있다”, “상체가 발달되어 있다”, “다리는 가늘다”고 응답하였다. 10번 응답자는 다리와 하체는 빈약하고 상체가 발달되어 있으며 아랫배가 돌출된 체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BMI 지수가 4유형 중에서 3번째에 속하며, 키는 가장 작은 유형으로 상체가 발달되고 하체와 다리는 빈약한 체형으로 마른 역사다리형의 체형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Table 8. Characteristic of Type 3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3	Standard score
1. I have a protruding abdomen.	1.91
8. I don't have muscles.	1.65
26. I have a underbelly.	1.58
29. My legs are thinner than my body.	1.51
2. I have a developed upper body.	1.26
23. I am bent forward.	1.02
7. I have weight on my back.	1.00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3	Standard score
17. I am tall.	-1.01
24. I am a body that is bent backward.	-1.19
3. I have a developed under body.	-1.24
30. I have protruding hips.	-1.25
21. I have thick calves.	-1.28
10. I have big hips.	-1.32
16. I have a lot of weight on my arm.	-1.35

2.4 Type 4: Upper body obesity inverted triangle type

제4유형은 제3유형과는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제4유형 중년 여성들은 제3유형보다 비만하고 상체가 더 발달된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제4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뚱뚱한 체형이고(No.9), 가슴이 크며(No.18), 상체가 발달된 것(No.2)으로 나타났다. 또, 등에 살이 많이 붙어 있고(No.7) 다리가 몸에 비해 가는 체형(No.29)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종아리가 굵고(No.21) 발목이 두껍다(No.22), 배부위가 가슴부위보다

더 돌출되어 있다(No.15), 허리둘레가 엉덩이둘레보다 큰 마름모형 체형이다(No.19), 근육이 없다(No.8), 어깨가 처져 있다(No.31), 하체가 발달되어 있다(No.3)는 진술문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9).

요인가중치가 큰 3번(1.28) 응답자는 제4유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10번 응답자는 “가슴이 크다”, “뚱뚱한 체형이다”, “팔에 살이 많다”, “다리가 몸에 비해 가늘다”고 응답하였다.

Table 9. Characteristic of Type 4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3	Standard score
9. I am a fat body.	1.91
18. I have a big bust.	1.73
2. I have a developed upper body.	1.27
7. I have weight on my back.	1.22
29. My legs are thinner than my body.	1.12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3	Standard score
21. I have thick calves.	-1.17
22. I have thick ankles.	-1.22
15. I have more abdomen than the chest area.	-1.30
19. I have a diamond shape whose waist circumference is larger than the hip circumference.	-1.35
8. I don't have muscles.	-1.36
31. I have drooping shoulders.	-1.44
3. I have a developed under body.	-2.23

그 이유로는 “유전적인 특성상 가슴이 크고 돌출되었다”, “소아비만이었던다가 나이가 들면서 살이 쪼서 뚱뚱하다”, “살이 찌고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하다 보니 근육과 살이 다 많아서 팔이 두껍다”, “하체의 경우 다른 부위에 비해 가늘어서 상체의 옷보다 2단계 정도 작은 사이즈의 옷을 구입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체가 발달되어 있다”, “근육이 없다”, “키가 크다”, “발목이 두껍다”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어깨나 팔의 힘을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다보니 직업특성상 상체가 발달되어 있다”, “몸을 움직이는 작업을 많이 해서 근육은 많다”, “키는 보통보다 작은 편이다”, “발목이나 손목 같은 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가늘다”고 응답하였다. 3번 응답자는 중등비만에 속하며, 손목과 발목은 가늘고 하체는 빈약하면서 상체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체형으로 역삼각형 형태의 체형으로 인식되었다.

BMI 지수가 4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유형으로, 4유형에 속하는 피험자 모두가 경도, 중등비만에 속하였으며, 키는 두 번째로 작으나 몸무게는 4유형 중 가장 많이 나가는 유형이다. 상체가 발달되고 하체와 다리는 빈약한 체형으로 역삼각형의 체형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중년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유형화

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유형별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신체 외형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복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양적 및 실험설계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은 실제 중년 여성의 신체치수를 분석하여 체형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중년 여성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탐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관적 속성들에 걸쳐 중년 여성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주관성 연구를 활용하였다. 중년 여성이 자신의 체형에 대해 나타내는 다양한 유형들이 갖고 있는 주관성의 형성과정과 주요 특징을 탐색하고 분석하였다.

중년 여성의 체형에 대한 유형은 탄력상실 사다리형 체형, 납작 직사각형 체형, 마른 역사다리형 체형, 상체 비만 역삼각형 체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탄력상실 사다리형 체형은 하체가 발달된 유형으로 허벅지와 종아리 등 다리관련 둘레가 크고, 복부가 돌출되어 있으며 특히, 아랫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납작 직사각형 체형은 키가 4유형 중 가장 크고 마른 체형이며 몸통의 두께보다 너비가 크고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 차이가 작아 밋밋한 직사각형 체형으로 분류되었다. 마른 역사다리형 체형은 4유형 중 키가 가장 작고 상체가 발달되고 등에 살이 많으며, 앞으로 숙인 체형이다. 또, 하체와 다리는 빈약하며 복부는 돌출된 체형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체 비만 역삼각형 체형은 BMI 지수가 4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유형으로, 4유형에 속하는 피험자 모두가 경도, 중등비만에 속하였으며, 키는 두 번째로 작으나 몸무게는 4유형 중 가장 많이 나가는 유형이다. 뚱뚱한 체형으로 가슴이 크며 상체가 발달되어 있고, 하체와 다리는 빈약한 체형으로 분석되었다.

자료의 분석결과, 중년 여성의 체형은 크게 3가지로 상체가 발달되고 하체는 빈약한 체형, 하체가 발달되고 상체는 빈약한 체형, 그리고 상체와 하체 모두 빈약하면서 허리의 굴곡이 없어 직사각형의 형태를 나타내는 체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년 여성들은 본인의 체형을 3가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중년 여성의 체형을 바탕으로 체형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디자인 및 패턴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중년 여성의 경우 대체로 복부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상의 제작 시 허리부분의 여유량 설정 시 이러한 체형의 특징을 고려해야 하며, 하의의 엉덩이 옆선 제도 시에도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차이치수 및 복부의 돌출을 고려하여 여유량 및 곡선의 정도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중년 여성의 체형을 고려하여 의복을 제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체형에 부적합한 의복 착용을 통한 체형의 변화 및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서울과 경기, 충북 지역의 중년 여성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중년 여성의 체형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Q방법론이 소수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질적 연구이지

만, 일반화의 가능성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필요할 것이며,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 검증을 거쳐 인식과 실제 체형의 차이를 비교·분석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Nam, S. "The effects of middle-aged married women's sexuality and work on their levels of psychological happines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16, No. 1, pp. 197-222, 2009.
- [2] Jaques, E. "Death and the mid-life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 Vol. 46, No. 4, pp. 502-514, 1965.
- [3] Sheehy, G. "Passages," New York: Dutton, 1976.
- [4] Gould, J. "The New Man.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Vol. 7, No. 2, pp.8-11, 1976.
- [5] Erickson, E. H.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Vol. 4, No. 1, pp.56-121, 1956.
- [6] Levinson, D. J. "The Seasons of a Man's Life," Ballantine Books, 1978.
- [7] Havighurst, R. J. "Development task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David McKay, 1972.
- [8] Levinson, D. J.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16, No. 1, pp. 197-222, 1986.
- [9] Kim, M. C. "Mid-life crisis and it's related variables(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1989.
- [10] Park, E. K. "Effect of auricular acupressure therapy on stress and depression in middle aged women(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2015.
- [11] Park, E. S.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study of aging in Middle-aged Men(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2014.
- [12] Shin, H. C., & Sim, H. S.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the MBTI for middle-age women on their self-image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women study*, Vol. 75, pp. 93-133, 2008.
- [13] Hong, D. A. G., & Lee, N. J. "A Study on coping behavior in midlife married women's crisis," *Proceedings of 2005(113-114)*,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2005.
- [14] Park, S. J. "A study on Slacks prototypes by analyzing the lower body shape of middle-aged women(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 University, 1994.
- [15] Song, B. K. "A study on the production of pattern in the accordance with the constructional factor of slacks : for 45~59 aged Middle Woman(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University, 2000.
- [16] Park, S. Y. "A study on the stretch fabric slacks pattern for middle aged women(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2004.
- [17] Yang, H. "A study on the torso and sleeve patterns using stretch fabric-focused on the middle age women(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2004.
- [18] Beom, S. H. "A Study on knit-wear design for the complement of middle-aged women's figure(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2005.
- [19] Choi, J. H.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using collage technique on depression in middle aged women(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2008.
- [20] Jang, M. H. "Development of Torso pattern with Princess-line for each body type of middle aged women(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Catholic University, 2012.
- [21] Shim, J. H. "A study on somatotype classification and self-evaluation of the middle-aged women(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2000.
- [22] Lee, J. J. "study of knit slacks pattern according to lower body types of middle-aged women(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11.
- [23] Yoon, J. W. "The Development of Tight Fit Torso Patterns with Body Type of Women by 3D Body Scan Data: Using the Virtual Appearance Evaluation(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13.
- [24] Lee, J. K. "Research for the slacks basic pattern and the lower sizing system for lower garments according to lower body types of middle-aged women(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5.
- [25] Lee, H. S. "A Study on local and social workers' role perception in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zone plan: focused on Q method(Unpublished master's thesis),"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10.
- [26] Ryu, B. H., Kim, Y. L., & Hwang, J. H. "Research Articles: Wine Experts' subjectivities of Youngcheon MBA Red Wine: A Q method," The Journal of tourism sciences society, Vol. 38, No. 3, pp. 213-233, 2014.
- [27] Brown, S. R. "Political Subjectivity-Q Methodolog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80.
- [28] Kim, H. "Q methodology: Science Philosophy, theory, analysis and application," Seoul: Communicationbooks, 2008.
- [29] Kim, S. "Q methodology and Social science," Seoul: Kumjung, 2007.
- [30] Kim, K. Y. "Applying Q methodology to analyze mobile advertising effects on smart device user segmentation(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eonsei University, 2011.

Authors



Su-Joung Cha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Clothing and Textiles fro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in 1996, 2005 and 2009, respectively. Dr. Cha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Fashion and Clothing at Seowon University, Chungju, Korea, in 2017.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Fashion and Clothing, Seowon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human body, virtual 3D simulation, and pattern making.